

사회



광주 도심 튤립 '활짝' 12일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광주시 동구 운림동 동적골체육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튤립을 감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천700㎡ 규모의 튤립농원을 조성하고 10가지 종류의 튤립 8만8천송이를 가꾸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청소년 '사이버 통금' 첫 적용 대상은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피로도 시스템=일정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아이템이나 경험치를 낮춰 게임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진 게임 시스템 내 프로그램. 게임 몰입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실시하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 차단 정책의 첫 적용대상 업체는 넥슨이 됐다.

12일 문화부는 브리핑을 통해 자정 이후 오전 8시까지 청소년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우선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개 게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게임은 모두 청소년들이 주로 즐기는 롤플레이게임(RPG)이다. 롤플레이게임은 이용자가 캐릭터를 성장·육성해 레벨(등급)을 올리는 것으로, 몰입도가 높은 게임 장르다.

문화부에서 이들 3개 게임에 대해 청소년의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은 강한 중독성과 대중성 때문이다.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해 캐릭터의 레벨도 상승하게 돼 질제력이 약한 청소년이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특히 메이플스토리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1억명의 사용자가 가입돼 있을 정도로 대중성이 높다.

한편 넥슨은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이들 게임에 대해 이번 제도를 적용하며, 문화부는 향후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늘려가기로 했다.

현재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영웅전', '드래곤네스트', NHN의 'C9' 등 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피로도 시스템 역시 확대된다.

문화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아이온', '리니지' 시리즈, CJ인터넷의 '드래곤볼 온라인', '대항해시대 온라인', '프리우스 온라인', NHN '아틀라티카', 'R2' 등, 한빛소프트 '에이카 온라인', '헬게이트: 런던', 위메이드 '청천', '미르의 전설2', 엠게임 '열혈강호', '영웅 온라인', 웹툰 '뮤 블루' 등 19종의 롤플레이 게임에도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비그친뒤 쌀쌀
아침 한때 비가 내린 뒤 그쳤...
광주: 비온뒤 맑음 8/11C
대전: 흐린 뒤 맑음 8/12C
대구: 흐린 뒤 맑음 8/11C
부산: 흐린 뒤 맑음 8/11C
제주도: 비온뒤 맑음 7/9C

폭풍·폭염·전염병...기후변화 관련 재해

전남이 가장 취약

광주 등 대도시 피해 적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에 전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광주 등 대도시의 피해는 적었다.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는 12일 "국내의 홍수, 태풍, 폭풍으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비율과 기후변화 관련 전염병 환자 연평균 발생률, 1994년 7~8월 폭염 발생 당시 사망자 증가율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남을 비롯한 강원, 경남 등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남은 폭풍으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비율(인구 100만명당 4.09명)이나 폭염발생 사망률(108명), 설치류 매개 전염병 발생률(31.57명),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률(0.84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취약성이 최상위권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쥐가 늘어나면서 쓰쓰가무시, 한타바이러스 등 전염병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해수면도가 높아지면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은 홍수(4.79명), 태풍(5.97명)에 의한 사망률이 전국 최고였고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6.03명)도 전국 최고인 인천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기후변화 건강적응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 설치 등 인력과 조직,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기후변화건강포럼은 13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건강적응 정책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의 월례포럼에서 장 교수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의 기후변화 건강적응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2010 국제 광산업전시회 및 국제광기술컨퍼런스
2010. 4. 13(화) ~ 15(목) 김대중컨벤션센터
KOREA 2010
LG미노텍, 삼우테크놀로지 등 100여 주요 기업 참가
독일 Trumpf, 중국 BWT Beijing 등 해외업체 다수 참가
광·IT, 광·조선, 광·농업, 광·자동차 등 융복합 분야 공동관 구성
해피비이더 다수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광산업계 신기술·신제품발표세미나
광동북한 유관기관 기술이전 설명회

광주학생독립운동 '도화선' 애국지사 이광춘 여사 별세

통학열차서 일본인 학생들에 댕기머리 잡혀



1930년 1월 13일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체포된 동료의 석방을 주장하며 백지(시 험 거부)동맹을 주도하다가, 퇴학처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이 같은 이 여사의 공훈을 기려 1996년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임장규 씨 등 5남과 효선 씨 등 3녀가 있다. 발인은 14일 오전 11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며 빈소는 광주보훈병원 6분향실이다.
062-973-9166, 2남 임운규 (010-2683-5959).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해 일본 경찰로부터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르는 등 갖은 고초를 겪은 애국지사 이광춘 여사가 12일 오전 11시42분 별세했다. 향년 96세.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일본인 중학생이 당시 광주여고보에 재학중이던 이광춘·박기옥 등을 희롱한 사건이 발단이 돼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항일 시위다.
당시 3학년이던 재학중이던 이광춘 여사 등은 광주에서 출발해 오후 5시30분께 나주역에 도착한 통학열차 안에서 광주중학교에 다니던 일본인 남학생에게 댕기머리를 잡히는 등 희롱 당했다.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일본 학생의 희롱은 계속됐으며, 이를 말리던 박기옥의 사촌동생에게 일본인 학생이 한국사람을 비하하는 '조센징'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한국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 싸움은 일제의 수탈과 멸시를 겪으며 자라던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이광춘 여사는 이후 광주여고보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면 받아도 '3진아웃' 횡수에 포함

법원 판결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사실에 대해 사면을 받았더라도 3진아웃 횡수에는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 이준명 판사는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모(58)씨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은 사면받았기에 3진

경찰서장 보직인사에 교통사망사고율 반영

경찰청은 12일 경찰서장의 성과 평가 지표에 교통 사망사고 감소·증가율을 포함해 이를 보직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하는 전년 대비 사망사고율과 비교해 이뤄지며, 사망사고율을 감소시킨 서장은 보직인사에서 혜택을 받고, 늘어난 곳의 서장은 불이익을 받는다.
/연합뉴스

한국광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10 국제 광산업전시회 및 국제광기술컨퍼런스
2010. 4. 13(화) ~ 15(목) 김대중컨벤션센터
KOREA 2010
LG미노텍, 삼우테크놀로지 등 100여 주요 기업 참가
독일 Trumpf, 중국 BWT Beijing 등 해외업체 다수 참가
광·IT, 광·조선, 광·농업, 광·자동차 등 융복합 분야 공동관 구성
해피비이더 다수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광산업계 신기술·신제품발표세미나
광동북한 유관기관 기술이전 설명회
호남광역경제권 반드시! 국제교류협력 원동기 조성 세미나 병행개최 : 2010. 4. 14
참가신청문의 : 02-740-0000, 011-040-00000